

# 韓國圖書館史研究 (三)

朴 熙 永

- 7) 御書閣, 御書房
- 8) 臨川閣
- 9) 清澗閣, 寶文閣, 寶文署, 文牒所, 書籍所
- 10) 紫宸殿, 景德殿, 延英殿, 集賢殿,
- 11) 重光殿, 御藏書印
- 12) 天章閣
- 13) 史庫

## 第二章 圖書文化

### 1) 外國과의 關係

- a) 後唐
- b) 周
- c) 契丹
- d) 遼
- e) 宋

### 7) 御書閣, 御書房

高麗史 卷六 靖宗十一年四月條에

「巴酉秘書省進新刊禮記正義七十本毛詩正義四十本命藏一本於御書閣除賜文臣」이라고 있다.

即 靖宗 11年(1045) 4月23日 秘書省이 新刊한 禮記正義七十本과 毛詩正義四十本을 進하였으므로 命하여 一本은 御書閣에 藏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文臣에게 賜하였다고 한다. 또한

高麗史 卷十一 肅宗一年七月條에

「庚寅朔御文德殿覽歷代秘藏文書樞部秩完全者分藏于文德長齡殿御書房秘書閣除賜兩府宰臣及誥院史翰內侍文臣有差」라고 있다.

即 肅宗 1年 (1096) 7月1日 文德殿에서 肅宗이 歷代 秘藏의 文書를 閣覽하였는데 樞部秩의 完全한 것을 골라서 文德殿, 長齡殿, 御書房 秘書閣에 나누어 藏하게 하고 나머지는 兩府의 宰臣及誥院史翰內侍文臣에게 賜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以上の 두記錄으로 宮中에 圖書를 藏하

는 御書閣과 御書房이라는 곳이 있었던 것을 알수있다. 御書閣과 御書房이 別個의 施設인것 또는 다만 閣名만을 改稱한 同一의 施設인지는 記錄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이 記錄으로 御書閣과 御書房이라는 비슷한 閣名이 藏書閣이 있었던 것을 알수 있다.

### 8) 臨川閣

海東釋史 卷二九 官室集條에

「臨川閣其聚書類之所」라고 있고

高麗圖經 卷六 宮殿條에

「臨川閣在會慶殿西會同門內爲屋四楹窓戶洞達外無重簷頗類臺門非燕集之地其中藏書數萬卷而已」라고 있고

海東釋史 卷四二 經籍條에 高麗圖經을 引用하였다고 하여

「高麗臨川閣在會慶殿西會同門內其中藏書至數萬卷又有清澗閣亦實以經史子集四部之書」라고 있다.

臨川閣은 宮中에 있었던 圖書를 藏書하는 閣이었음을 알수 있다. 正確한 藏書數는 알수 없으나 藏書하기를 數萬卷에 이른다고 記錄되어 있는 것으로 相當數의

圖書를 所藏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高麗圖經은 宋의 徐兢이 使臣으로서 高麗에 왔다가 宋으로 도라가서 宋의 徽宗 6年 即 高麗 仁宗2年(1124)에 著述한 紀行文으로서 當時의 高麗를 알 수 있는 貴한 資料인바 徐兢으로서 高麗의 臨川閣이 몹시 印象的인었으며 藏書가 甚히 많아서 特記한 것으로 생각된다.

9) 淸澹閣, 寶文閣, 寶文署, 文牒所, 書籍所

海東釋史 卷二十九 官室集條에

「建三閣曰寶文以奉果聖所賜詔書西曰淸燕以藏諸史子集金線爲燕記」라고 있고 海東釋史 卷四二 經籍條에 高麗圖經을 引用하였다고 하여

「高麗臨川閣在會慶殿西會同門內其中藏書至數萬卷又有淸澹閣亦寶以經史子集四部之書」라고 있고

海東釋史 卷二十九 官室集條에 初學集에서 引用하였다고 하여

「寶文淸澹皆高麗秘閣 臨川閣在會慶殿西會同門內爲四楹窓戶洞達外無重櫺頗類臺門非燕集之地其中藏書數萬卷而已」라고 있고

經義考에

「睿宗別置閣於淸燕閣傍 號曰寶文加直大學士一人」이라고 있고

高麗史節要 卷八 睿宗十一年八月條에 「禁中作淸澹閣選置學士直閣各一員朝夕講論經籍」이라고 있고

高麗史節要 卷八 睿宗十一年十一月條에 「以淸澹閣在禁中學士直宿出入爲難乃修紅樓下南廊爲學士會講之堂賜號曰精義就其左右爲休息之所改號寶文閣移淸澹閣學士充之加置待制直賜金紫充其選者皆一時豪彥」이라고 있다.

以上이 여러 記錄을 綜合하여 본다면 淸澹閣은 臨川閣과 아울러 圖書를 많이 藏하고 있었던 宮中の 藏書閣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히 「經史子集四部之書」라고 記錄되어 있는바 이 記錄이 淸澹閣의 藏書가 四部로 分類 整理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記錄인지 또는 經史子集四部에 걸친 여러 部類의 圖書가 있었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如何間 臨川閣과 아울러 高麗가 자랑할 수 있는 巨大한 宮中の 藏書閣이 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藏書閣이 었던 淸澹閣은 肅宗11年(1116) 11월에 寶文閣이라고 改稱하게 되었고 寶文閣은 많은 藏書를 土著로 하여 學士들이 모여서 講論하는 곳으로 目的을 달리 하게 되었다. 寶文閣은 다시 寶文署라고 改稱하게 되고 寶文署는 王을 爲한 講習 講論하는 곳으로 變하였다.

그러나 寶文閣으로 되어서도 如前히 圖書를 藏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高麗史 卷三十 忠烈王十六年十一月條에 「甲辰移國史及寶文閣秘書寺文籍于江華」라고 있다.

即 忠烈王 16年(1290) 11月5日 亂을 避하기 爲하여 國史와 寶文閣 秘書寺의 文籍을 江華로 옮긴 記錄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高麗史 卷七十六 志 卷三十 百官一 寶文閣條에

「……毅宗五年如置文牒所於寶文閣以文士十四人及寶文閣校勘專掌其事命司空林光爲別監……」이라고 있다.

即 毅宗5年(1151) 文牒所를 寶文閣에 創置하고 文士十四인과 寶文閣校勘으로 하여금 文牒所의 일을 맡게 하였으며 司空 林光에 命하여 別監으로 하였다고 하

는데 文牒所의 所管事務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寶文閣에 別置하여 文牒所를 設置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清澹閣이 寶文閣으로 改稱하던 그 즈음의 記錄에

高麗史 卷十六 仁宗七年八月條에

「戊申御書籍所命承宜鄭沆說宋朝忠義集王欲以聽政之暇與諸學士講學以壽昌宮側侍中邵台輔家爲書籍所袁集文書令大司成金富樞禮部員外郎林完與諸儒臣更直」이라고 있다.

即 仁宗 7年(1129) 8月2日 寶文閣이 王의 講論의 곳으로 되기前 寶文閣이 學士들의 講論所로 使用되고 있었을때 寶文閣과 別置한 仁宗만의 經筵所로서 書籍所를 設立하고 文書를 袁集하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文書라고 함은 圖書를 말하는 것으로서 清澹閣 代身으로 書籍所가 設立된 것을 알 수 있다.

10) 紫宸殿, 景德殿, 延英殿, 集賢殿

高麗史 卷十一 肅宗四年四月條에

「壬辰御延英殿檢閱御藏文書」라고 있다.

即 肅宗4年(1099) 4月20日 肅宗이 延英殿에서 御藏圖書를 檢閱하였다고 한다.

또한

高麗古都微 二卷에

「金黃之字天民 光陽縣人肅宗開延英殿召掌書籍 每觀所疑 則輒質之 呼爲先輩而不名」

이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延英殿에 書籍이 있었고 이곳에서 論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延英殿은 元來 紫宸殿이라고 하던것이 景德殿으로 改稱되고 다시 延英殿으로 改稱된 것이다.

高麗史 卷四 顯宗十二年一月條

「乙巳改紫宸殿爲景德殿」

高麗史 卷四 顯宗十二年七月條

「癸卯改……景德殿爲延英」

高麗史 卷十六 仁宗十六年五月條

「庚戌改諸殿閣及官門名御書額號……延英收集賢」

以上的 세 記錄으로 보아 顯宗12年(1021)

1月29日 紫宸殿이 景德殿으로 改稱되었고 顯宗12年(1021) 7月30日 景德殿이 延英殿으로 改稱되었다가 仁宗16年(1138) 5月26日 延英殿은 集賢殿이라고 改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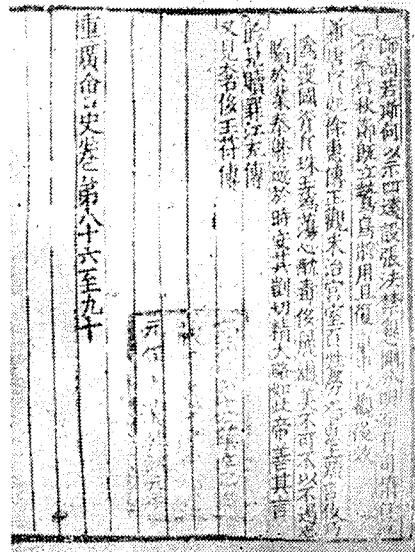
11) 重光殿, 御藏書印

高麗史 卷十一 肅宗六年二月條에

「戊午御重光殿閱覽書籍」이라고 있고

高麗古都微에

「重光殿에서 王이 書籍을 閱覽하였으려 書籍에 安印하였다. 印文은 高麗國十四葉辛巳歲藏書大宋建中靖國元年大遼乾統



藏書印

元年이라는 二十五字三行의 印이다」라고 있으며  
朝鮮王朝實錄 世祖九年五月 三十日條에  
있는 訥齋 梁誠之의 啓狀을 보면

「……前朝肅宗始藏經籍其國書之文 一曰  
高麗國十四葉辛巳歲御藏書大宋建中靖國  
元年大遼乾統九(元의 誤植)年一曰高麗  
國御藏書自肅宗朝至今六百六十三年(三  
百六十三年의 誤植)印文始作文獻可考…」  
라고 있다.

以上の 記錄으로 肅宗6年(1101) 2月27  
日 王이 重光殿에서 書籍을 閱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러나 肅宗이 重光殿  
에서 書籍을 閱覽한 史實보다도 所謂御藏  
書에 藏書印을 安印하였다는 事實이 더욱  
重要한 것이다.

## 12) 天章閣

高麗史 卷十四 睿宗十二年六月條에

「癸亥命置天章閣于禁中藏宋帝所賜親製  
詔書及御筆書畫」라고 있다.

即 睿宗12年(1117) 6月6日 宮中에 天  
章閣이라는 閣을 두게 하고 그곳에 宋帝로  
부터 보내온 親製詔書라던가 宋帝의 親筆  
書畫를 藏하게 하였다는마 天章閣이 建立  
되기 前에는 必竟은 秘閣과 같은 곳에 保  
管되었을 것이며 그러던것이 事大思想  
으로 因하여 宋帝로부터 보내온 것만을  
따로히 保管하게 된것이라고 보겠다.

## 13) 史庫

高麗史 卷四十 恭愍王十一年八月條에

「己未 留都監察司上疏曰京都近經兵火人  
民離散里閭空虛其還者亦因訛言隨合隨散  
蓋以分司官淹留不來而諸道貢賦又不輸京  
由是人無所繫狐疑未定日就殘弊乞貢賦依  
舊悉輸京都扈從百司定額侍衛除悉赴都 祭

祀國之大事而堂後禮儀司主之今堂後尙不  
來亦宜遣遺史庫所藏實錄史藁僅有三櫃十  
餘箇置之文廟恐至遺失宜令史官曝曬以藏  
又今直宿」이라고 있다.

即 恭愍王11年(1362) 8月24日 留都監  
察司가 上疏하기를 兵火로 말미암아 史庫  
에 藏하였던 實錄 史藁가 남기를 不過三  
櫃十餘箇이나 이를 文廟에 두면 必竟 遺  
失될것이니 史官으로 하여금 曝曬하여 藏  
하게 하고 또 直宿케 하기를 上疏하였으며  
高麗史 卷四十 恭愍王十一年十月條에

「乙亥留都宰樞啓紅賊後史庫破敗實錄散  
在露地宜遣史官收貯從之」라고 있다.

即 恭愍王11年(1362) 10月4日 留都宰  
樞가 啓하기를 紅賊의 亂이 있은後 史庫  
가 破敗하여 實錄이 露地에 散在하여 있  
으니 史官을 遣하여 收藏케 할 것을 啓하  
였는데 이에 따랐다고 한다.

恭愍王11年時는 外寇와 內亂, 政爭이  
極甚하던 때이다. 以上の 記錄으로 高麗  
時代에도 史庫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高麗史 卷四 顯宗四年九月條에

「丙辰以吏部尙書兼知政事崔沆監修國史  
禮部尙書金審言修國史禮部侍郎周行內史  
舍人尹徵古侍御史黃周亮右拾遺崔沖並爲  
修撰官」이라고 있다.

即 顯宗4年(1013) 9月27일에 처음으로  
監修國史를 두게 되어서 비로소 修史事業  
이 國家事業으로서 始作되었으며 睿宗 17  
年(1122)에는 宋朝故事에 따라 編修官을  
두게 되어 實錄을 記錄하게 되었는데 高  
麗時代에 있어서 史庫라는 記錄이 있기는  
恭愍王 11年(1362)에 처음 보이나 睿宗  
17年(1122) 實錄을 編하게 된 以後부터는  
實錄을 藏하여 두는 庫가 있었던 것을 推  
測할 수 있다.

## 第二節 圖書文化

### 1) 外國과의 關係

#### a) 後 唐

高麗史 卷一 太祖十一年八月條에

「新羅僧洪慶自唐閩府航載大藏經一部至禮成江王親迎之置于帝釋院」이라고 있다

即太祖11年(928) 8月 新羅時代에 入唐하였던 僧 洪慶이 唐의 閩府로 부터 水路로 大藏經一部를 가지고 禮成江에 이르렀음에 王이 親이 이를 마쳐 帝釋院에 두게 하였다는바 大藏經이라고 나오는 最初의 記錄이다.

#### b) 周

高麗史 卷二 光宗十年條에

「秋遣使如周進別序孝經一卷越王孝經新義八卷皇靈孝經一卷孝經雌雄圖三卷」이라고 있다.

光宗10年(959) 가을 使臣을 周에 보내어 別序孝經一卷, 越王孝經新義八卷, 皇靈孝經一卷, 孝經雌雄圖三卷을 進하였다 고하는바 高麗가 周로 圖書를 보낸 記錄이다.

#### c) 契 丹

遼史 卷十四 統和二十年七月條에

「辛丑高麗遣使來貢本國地理圖」라고 있다.

統和20年은 契丹의 第1代王인 聖宗20年이 되고 高麗의 穆宗5年(1002) 7月8日에 該當한다. 即 高麗의 使臣이 契丹에 가서 地理圖로 貢하였다고 있으며 高麗史 卷八 文宗十七年三月條에

「丙午契丹送大藏經王備法駕迎于西郊」라고 있다.

即 文宗17年(1053) 3月4日 契丹이 大

藏經을 보내 왔는데 王이 法駕를 가치고 西郊에서 이를 마쳐하였다고 하는바 契丹으로 부터도 大藏經이 드러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d) 遼

遼史 卷二三 咸雍八年十二月條에

「庚寅賜高麗佛經一藏」이라고 있다.

遼의 咸雍8年은 遼의 道宗王8年이며 高麗의 文宗26年(1072) 12月16日에 該當된다. 遼의 初代王 道宗이 佛經一藏을 高麗에 賜하였다고 하며

高麗史 卷十一 肅宗五年五月條에

「壬午遼遣張臣言來諭冊命元子王備儀…今差秘書少監張臣言往彼報諭…又賜釋經二函」이라고 있다.

即 肅宗5年(1100) 5月16日 遼가 秘書少監인 張臣言을 元子 冊命을 爲하여 보내 왔는데 여러 物品과 아울러 釋經二函을 賜하였다고 하며

高麗史 卷十二 睿宗二年正月條에

「庚寅遼遣高存壽來賀生辰仍賜大藏經」이라고 있다.

即 睿宗2年(1107) 1月3日 遼가 高存壽를 보내 王의 生辰을 賀하였으므로 高麗는 大藏經을 賜하였다고 한다. 睿宗2年은 釋賡義天이 大藏經을 刊行한 宣宗3年(1086)以後의 일이다.

#### e) 宋

宋과의 圖書文化 交流는 大端히 頻繁하였던 것이다. 于先 宋으로 부터 圖書가 高麗로 드리는 事實을 살펴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成宗2年(983) 5月9日

「博士 任老成이 宋으로 부터 도라오다.

大廟堂圖一鋪와 記一卷, 社稷堂圖一鋪와 記一卷, 文宣王廟圖一鋪, 祭器 圖一

卷,七十二賢贊記一卷을 바치다」

※ 高麗史 卷三 成宗二年五月甲子  
成宗10年(991) 4月21日

「韓彥恭 宋으로 부터 도라오다. 宋帝太宗이 준 大藏經 481函凡 2500卷을 바치다. 王 이를 맞아 內殿에 넣다」

※ 高麗史 卷三 成宗十年四月庚寅  
※ 高麗史 卷九三 列傳六

顯宗13年(1022) 5月8日

「韓祚 宋으로 부터 도라오다. 宋帝 眞宗이 聖惠方, 陰陽二宅書 乾興曆, 釋典一藏을 賜하다」

※ 高麗史 卷四 顯宗十三年五月丙子  
顯宗18年(1027) 8月20日

「宋의 江南商人 李文通等이 와서 書冊凡 597卷을 바치다」

※ 高麗史 卷五 顯宗十八年八月丁亥  
文宗37年(1083) 3月14日

「太子에 命하여 宋朝의 大藏經을 가져서 開國寺에 두게하고 道場을 設하게 하다」

※ 高麗史 卷九 文宗三十七年三月己丑

宣宗2年(1085) 8月

「林槃等 朱에 가서 刑法圖書인 太平御覽, 開寶通禮, 文苑英華를 買書한것을 請하였으나 許可치 않고 다만 文苑英華一書만을 賜하다」

※ 宋史 卷四八七 列傳二四六 外國三  
宣宗3年(1086) 6月

「王弟인 釋煦 宋으로 부터 도라오다. 釋典及 經書 1000卷을 바치다 奏하여 興王寺에 敎藏都監을 두게하다. 遼, 宋, 日本으로 부터 購書한것이 4000卷에 이르렀는데 모다 刊行하다」

※ 高麗史節要 卷六 宣宗三年六月

宣宗4年(1087) 3月 22日

「宋商 徐猷等 20人이 와서 新註華嚴經板을 바치다」

※ 高麗史 卷十 宣宗四年三月甲戌  
宣7宗年(1090) 12月

「宋 文苑英華集을 賜하다」

※ 高麗史 卷十 宣宗七年十二月  
宣宗10年(1093)

「黃宗慤等 宋에 가서 歷代史及 策府元龜等 書籍의 買書를 請하였으나 不許하다」

※ 宋史 卷十七 元祐八年二月

※ 東坡全集 卷三五 奏議論 高麗買書利害劄子三首

肅宗4年(1099) 6月12日

「尹瓘等 宋으로부터 도라오다 宋 資治通鑑을 賜하다」

※ 續資治通鑑 卷五〇五 元符二年正月乙巳

※ 卷五〇六 元符二年二月丁酉

※ 高麗史 卷十一 肅宗四年六月癸未  
明宗 22年(1192) 8月23日

「宋商이 와서 太平御覽을 바치다. 白金六十斤을 賜하고 崔誥으로 하여금 訛謬을 校讎케 하다」

※ 高麗史 卷二十 明宗二十二年八月癸亥

以上이 宋으로부터 드려온 圖書의 記錄이 고 다음은 高麗로부터 宋에 간것에 關한 記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宣宗8年(1091) 6月18日

「李資義等이 宋으로 부터 도라왔는데 宋帝 哲宗이 高麗에는 좋은 書籍이 많다는 것을 듣고 있어 館伴에 命하여 求하고 있는 書籍의 目錄을 만드려 이를

李資義에 주면서 말하기를 卷第不足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卷 傳寫 附來 할것을 부탁받고 왔다」그 目錄은 다음과 같다.

百篇尙書荀爽周易 十卷

京房易 十卷

鄭康成周易 九卷

陸績注周易 十四卷

虞翻注周易 九卷

東觀漢記 一百二十七卷

謝承後漢書 一百三十卷

韓詩 二十二卷

業遵毛詩 二十卷

呂悅字林 七卷

古玉篇 三十卷

括地志 五百卷

輿地志 三十卷

新序 三卷

說苑 二十卷

劉向七錄 二十卷

劉歆七略 七卷

王方慶園亭草木疏 二十七卷

古今錄驗方 五十卷

張仲景方 十五卷

元白唱和詩 一卷

深師方黃帝鍼經 九卷

九墟經 九卷

小品方 十二卷

陶隱居效驗方 六卷

尸子 二十卷

淮南子 二十一卷

公孫羅文選水經 四十卷

羊祐老子 二卷

羅什老子 二卷

鍾會老子 二卷

阮孝緒七錄孫盛晉陽秋 三十三卷

孫盛魏氏春秋 二十卷

于寶晉記 二十二卷

十六國春秋 一百二卷

魏澹後魏書 一百卷

魚豢魏略劉瑤梁典 三十卷

吳均齊春秋 三十卷

元行沖魏典 六十卷

沈孫齊紀 二十卷

謝雄集 五卷

班固集 十四卷

崔駟集 十卷

汲冢紀年 一十四卷

謝靈運集 二十卷

顏延年集 四十一卷

三教珠英 一千卷

孔道文苑 一百卷

類文 三百七十卷

文館詞林 一千卷

仲長統昌言社恕體論諸葛亮集 二十四卷

王羲之小學篇 一卷

周處風土紀 一卷

張揖廣雅 四卷

管絃志 四卷

王詳撰音樂志蔡邕月今章句 十二卷

信都芳撰樂書 九卷

古今樂錄 十三卷

公羊黑守 十五卷

殺梁廢疾 三卷

孝經劉邵注 一卷

孝經韋昭注 一卷

鄭志 九卷

爾雅圖贊 二卷

三蒼 三卷

埤蒼 三卷

衛宏宮書 一卷

通俗文 二卷

凡將篇 一卷  
在昔篇 一卷  
飛龍篇 一卷  
聖皇章 一卷  
勸學篇 一卷  
晉中興書 八十卷  
古史考 二十五卷  
伏侯古今注 八卷  
三輔黃圖 一卷  
漢官解詁 三卷  
三輔決銀 七卷  
益部耆舊傳 十四卷  
襄陽耆舊傳 五卷  
稽康高士傳 三卷  
玄晏春秋 三卷  
于寶搜神記 三十卷  
魏名臣奏 三十一卷  
漢名臣奏 三十九卷  
今書七志 十卷  
世本 四卷  
申子 二卷  
隋巢子 一卷  
胡非子 一卷  
何承天性苑高士廉氏族志 一百卷  
十三州志 十四卷  
高麗風俗紀 一卷  
高麗志 七卷  
子思子 八卷  
公孫尼子 一卷

慎子 十卷  
晁氏新書 三卷  
風俗通義 三十卷  
泥勝之書 三卷  
靈憲圖 一卷  
大衍曆兵書摘要 七卷  
司馬法漢圖 一卷  
桐君藥錄 二卷  
黃帝大素 三十卷  
名醫別錄 三卷  
曹植集 三十卷  
司馬相如集 二卷  
桓譚新論 十卷  
劉琨集 十五卷  
盧誕集 二十一卷  
山公啓事 三卷  
書集 八十卷  
應璩百一詩 八卷  
古今詩苑英華集 二十卷  
集林 二十卷  
計然子 十五卷  
宗宗10年(1093) 1月 22日

「宋의 元祐8年 即 哲宗8年 高麗의 兵部  
尙書 黃宗憲等이 宋에 가서 宋帝에게  
鍼經을 獻書하였다」

※ 宋史 卷十七 元祐八年正月庚子  
또 玉海라는 圖書에 「元祐八年 高麗進  
書有京氏周易占十卷 疑隋志周易占十二卷」  
等高麗가 宋에게 獻書한 記錄이 있다.